



독자의 시선

주권자인 시민의 힘, 언제 어떻게 써야 할까

정 상 섭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선거철이다. 큰 선거들이 코앞이다. 선출직 공무원을 맡겠다는 많은 정치 지방생들이 있다. 겹어온 길이 바르고 곧고 깨끗하게 지역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출마자들의 도전은 분명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크든 작든 남 앞에 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자질이 있다. 바로 올바른 인성, 멸사봉공의 자세, 정책에 맞는 업무능력이다. 이런 품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이 지역의 일꾼이 되고 그들이 국가의 건실한 정치 지도자로 성장해 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지역과 국가가 정치 지방생들을 더 많은 자질을 갖춰 좋은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은 지역의 생존과 발전, 국제관계에서 국가 존립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럼 왜 좋은 지도자를 키우는 일이 중요할까? 우리 역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일제강점기, IMF 등 국가 위기 때마다 무능·부패한 국가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 없는 국민들이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가. 이런 비운의 역사는 올바른 지도자가 필요함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선거철이면 많은 유권자들이 묻는다. “급여도 작고, 내 시간도 없이 바쁘고, 별 이익도 없는데, 선출직을 하려고 목을 매는지 모르겠다.”

뭔가 이득이 있으니 그렇게 서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깨끗한 사람이 왜 정치하는 하려고 해? 당선되면 뭐 하려고?” 냉소적이고 듣기에 거북하지만 냉철한 질문이다. 정치를 왜 하려는지, 당선되면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직책을 제대로 해내기 위한 기본 자질을 갖췄는지, 철저한 자기검증을 선행하라는 뜻일 것이다.

사실 선출직 공무원이 출세의 자리인가? 명예의 자리인가? 아니면 이익을 취

하는 자리인가? 분명한 것은 출세도, 명예도, 이익을 취하는 자리도 아니다. 시민의 바깥 활동은 때로는 휴일임에도 민원 발생 현장을 방문하고, 수시로 민원인의 접견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라·통장, 주민자치회, 체육회 등 동과 시의 행사에 자주 참석해 민원을 듣는 일이다. 의회 안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와 공유제안, 예산 심의, 사후감사, 예산·결산 활동, 각종 위원회 참석,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자료 준비와 이를 공부하고 글로 써서 발표하려면 정말 시간이 바쁘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주로 의원들의 의회 밖 활동만 보지만, 사실 중요한 건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방청하고 모니터링 하는 데 큰 관심을 줘야 한다. 왜 그럴까? 그래야 의원의 의정 활동 내용을 제대로 알고 평가해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질책도 해서 우리와 후대들을 위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정치판이 개판이고 정치인을 그 나물이 그 나물이 다는 식으로 매도하지만, 실은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정치판을 더 나쁘게 만든다. 주권자인 주민이 지역의 명운을 좌우할 지역의 일꾼을 뽑아 놓고,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일을 하는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의정 활동은 의원이 하지만 그 활동에 대한 평가로 옥석을 가려내는 일은 유권자인 주민의 몫이자 책무다. 그러면 어떻게 옥석을 가려야 할까? 정치발전의 최대의 걸림돌인 학연, 지연, 학연 여부를 벗어나 객관적 시각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

다. 그 기준은 선악과 정오(正誤), 언행과 표리(表裏)의 일치, 공정과 정의 등 시대의 요구 가치가 돼야 한다. 또한 그 평가는 사실과 이해타산을 뛰어넘어 지역과 국가의 미래 발전에 맞고 후대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정치발전을 이루는 첫 단계다. 사실 의회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가 진정한 지역의 일꾼인지 금방 안다.

이 시대를 책임지고 일을 맡은 의원이나 일을 잘하라고 말한 유권자나 모두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끌 책무가 있다. 사회의 변화 속에 지역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예견되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해결 방법과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일꾼이 좋은 의원일 것이다.

정치가 삼류고 발전이 더딘 이유가 뭘까? 많은 이들은 정치인을 비롯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또한 내 편이 아니거나 내 이익과 배치되면 음해와 모함, 비방과 시기, 편 가르기로 인한 정치혐오와 무관심 때문이라고 한다. 성찰할 일이다.

정치는 국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시대의 가치들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정치인, 정치 지방생, 유권자 모두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 갑오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들이 시대 가치 실현을 위해 판을 바꾸고자 했던 결기가 오늘날 선거판에도 살아 있어야 한다.

올바른 인성, 열정, 실력을 갖춘 정치인이나 정치 지방생들을 선출하기 위해 번민과 고민이 쉽게 식는 열광이 아닌, 시민의 진중하고 냉정한 회초리 같은 굳은 결기의 판을 벌여야 할 때다. 그것이 주권자인 시민의 힘을 제대로 써 지역과 국가의 정치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기고

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황 석 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장

21년도 공익직불금이 조만간에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12월 초순 경 직불금 지급을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지급을 눈 앞에 둔 현 시점에서 직불금이 감액 적용되는 일부 실제 사례가 있기에 앞으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올해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주사무소는 관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이행점검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의 일환이며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신청한 면적 만큼 농사짓는지 확인 하는 현장조사다.

이행점검을 통해 농사짓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거나 논·밭 등과 같은 재배농지 모양을 갖추지 않은 채 관리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한 농가에게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데 감액의 주 원인은 묘지, 잡목, 건물 등 경작에 이용되지 않은 일부 또는 전체가 폐경인 농지를 직불금 신청한 것이었다.

현장에서 농사짓지 않음이 확인되어 본인에게 전화를 드리면 원래 농사짓던 건데 올해 사정이 있어 못했다는 얘기부터 내년에 해당 농지를 신청하지 않을 테니 좀 봐 달라는 등 여러 얘기가 있다. 종전 방식으로 직불금은 일단 다 신청하고 보자

는 생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농사짓지 않는 땅, 여러 해 동안 묵혀 두어 잡목이 우거져 숲 처럼 된 땅을 신청한 농가에게는 직불금 감액 조치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공익직불제 개편 이전의 직불제는 개별 농가에 게 직접 소득을 보전하는 것으로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목적이었기에 설명 직불금 신청이 잘못 되었다더라도 감액이라는 조치는 없었지만 공익직불제로 개편된 이후는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 경관 유지, 수자원 보존 등 농업 생산 활동으로 창출되는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것이기에 과거와 달리 직불금 지급 단가가 크게 상향되어 농가가 지급받게 되는 직불금 규모도 늘어 나게 되었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직불금 혜택이 크게 늘 어났으니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으로써 준수사항 이행은 필수이며 불이행 시 감액은 불가피하게 작동한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은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관련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개인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등이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 농사짓는 면적 만큼 직불금을 신청하는 것이니 이 점 꼭 유념하시고 내년부터는 올바른 직불금 신청으로 감액이 없기를 희망한다.

독자의 편지

미리 설치해두면 유용한 경찰청 모바일 앱

미리 설치해두면 유용한 경찰청 모바일 앱.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 더욱 쉽고 빠르게 경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첫째, 112긴급신고 앱이다. 납치 또는 성범죄와 같은 위급한 범죄 상황에서 112로 전화하여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112긴급신고 앱으로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경찰은 위급상황으로 판단하여 즉시 출동하게 된다.

둘째, 스마트 국민제보 앱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직접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함께 누구나 간편하게 제보할 수 있는 국민 제보 앱으로 제보 내용은 관련 기관으로 정보가 제공된다.

셋째, 잃어버린 물건을 최대한 빨리 찾아주기 위한 경찰 로스트 112 앱,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 등록된 관련 기관의 습득(보실)신고접수된

유실물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넷째, 안전Dream앱이다. 실종아동 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질환자 발생,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 등을 신고할 수 있고, 실종우려가 있는 자녀(부모)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실종발생 시 빠른 신고가 가능하다.

다섯째, 판매자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이트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할 수 있는 경찰청 사이버감. 스미싱 및 악성액, WIFI공유기 변조 확인 및 가짜앱으로 의심되는 앱(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을 제공한다.

여섯째, 실시간 익명 채팅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앱인 117Chat. 신고, 상담에 대하여 경찰청,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채팅 상담을 하고 있다.

/김윤아(정읍경찰서 경무계)

독자의 창

26번 국도 전주-진안간 보통재구간 안전운전 필수

1997년 무주 동계U대회를 위해 전주-진안간 국도 26호선인 보통재가 만들어졌으며, 2009-2013년사이 금융감독원의 보통재 교통사고처리 상황을 보면은, 발생 3,620건, 연간 평균 905건이나 발생하였고, 사망사고도 26건에 이를 정도로 사고발생률은 매우 높다.

1989년 9월 버스전복으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모래재를 대신하여 개통되었음에도 터널화가 이뤄지지 않아, 급커브와 급경사 구간이 많아 ‘죽음의 도로’로 불릴 정도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



되고 있고, 운전미숙이나 부주의에 의한 중앙분리대, 옹벽 등을 충격하는 단독사고가 빈번하다.

겨울철의 보통재는 온도로 인하여 도로에 결빙구간이 많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운전자의 주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굽은 내리막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후방운전자의 눈에 띄지는 어려워 절대로

예측운전을 금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 운전자는 이점을 대비하여 주의 기울여 운전함은 당연하고, 사고지점에 세운 삼각대는 반드시 지참하고, 사고발생시 최대한 당황하지 말고 지체없이 도로내에서 대피하여 112신고 및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119로 신고하여 사상자구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고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작은 마음가짐으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오기주(원주 소방파출소 경위)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 제보·투고 사회현상이나 일상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생각을 듣습니다. ▶ 홈페이지 sjbnews.com/커뮤니티/독자투고 게시판 ▶ 이메일 sjb282@gmail.com

새전북신문 www.sjbnews.com

5491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 새전북신문 BD

발행·편집인 박명규

인쇄인 우순금

안내 / 063) 230-5700

광고 / 063) 230-5714

제보 사회부 / 063)230-5850

정치부 / 063)230-5821

FAX / 063)231-8327

구독&독자서비스부 / 063) 230-5712

경제부 / 063)230-5840

사진부 / 063)230-5842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문화교육부 / 063)230-5818

자치행정부 / 063)230-5840

2000년 10월 25일 창간(등록일자 : 2000년 10월 23일) 등록번호 전북가-0004(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구독신청안내

063) 230-5712

중부	인후1동, 인후2동 일부, 인후3동/노동부 청사, 전주교령병원, 인후위브아울림, 인후 한신휴, 유일여고, 기린초, 인후초, 아중리 일대.
	010-8640-6855 / 246-6855
서전주	서신동, 효자동4가(서곡지구)/롯데백화점, 이마트, KT전북본부, e편한세상, 서신초, 서신고, 서신중, 전주서중, 여울초, 서일초, 서신동 일대.
	010-6278-5085 / 276-0034
평화	평화동1가~3가, 동서학동, 서서학동/전주교대, 전주교도소
	010-8883-5498 / 010-8858-9456
덕진	인후2동 일부, 송천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 전미동/유아동1가, 유아동2가, 전북대, 전북대병원, 고숙터미널, 전주역, 전주동물원, 전라고, 솔네고, 유아동3가, 용진동, 완주군청
	010-4611-8069
팔복	팔복동, 동산동, 여의동, 반월동, 장동, 조촌동, 고령동, 성덕동, 만성지구/ 덕진경찰서, 월드컵경기장, CBS전북방송, 전주한지박물관
	010-8627-6325 / 214-0300
남전주	중화산동1가, 중화산동2가 일부, 완산동/예수병원, 전주병원, 신동중, 신동고, 기전대학, 화산체육관, 근영여고, MBC, 화산동림, 중화산광진, 석정수팰리스, 남양왕실, 한신휴
	010-8883-5498 / 010-8858-9456

서 부	경원동, 고사동, 중영동, 고동, 전동, 진북동, 봉남동, 다가동, 태평동, 서노송동/ 전주시장, 덕진구청, 시교육청, 완산경찰서, 한옥마을, 중앙시장, 남부시장, 동국해성, 89부, 혁신도시	
	010-9397-2328 / 273-1008	
중화산	효자동1가 일부, 효자동2가~효자동4가, 중화산동/ 도청, 경찰청, 효자신시가지, 전주대, 비전대, 전주박물관	
	010-2799-1237 / 237-5863	
효 자	효자동1가 일부/ 삼천1동~삼천3동, 상산고, 서도프라자, 해성고	
	010-8883-5498 / 010-8858-9456	
완 주	봉동읍 봉동 지역, 3공단	삼례읍
	010-8824-9388	010-4013-4853
 새전북신문 THE SAEJEONBUK SHINMUN		

군산	군산시 전역	소룡동, 산북동
	010-2520-9593	010-9850-7734
익산	익산시 전역	
	010-6687-7734	
김제	김제시 전역	
	063-548-8866	
정읍	정읍시 전역	
	010-4654-3600	
고창	고창군 전역	
	010-6608-6842	
임실	임실군 전역	
	010-3208-2846	
남원	남원시 전역	
	010-9068-3077	
무주	무주군 전역	
	010-6823-2085 / 322-5005	
진안	진안군 전역	
	010-2433-1721 / 433-8291	
장수	장수군 전역	
	010-8765-5006	
순창	순창군 전역	
	010-5612-7239	
부안	부안군 전역	
	010-7247-3947	

새전북신문이 쓰면 大韓民國이 읽습니다.